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2월 16일 (제104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제도수정

경부선을 타고 가면 절대 전라도에 갈 수 없다. 잘못 들어선 것을 알았으면 한시라도 빨리 경부선을 빠져나와야 전라도에 이를 수 있다.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 혹은 결과가 생각과 달리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잘못 들어선 길이거나 내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과감히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 공들인 것이 아까워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면 더욱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는 셈이 된다.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쓰리과부가 된다. 그때 나오미는 결단한다. 잘못된 제도를 수정하기로.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거기서 귀인 보아스와 며느리 룓을 결혼시킨다.

누가복음 5장에는 밤새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5:4)고 하신다.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 제도를 수정해본 것이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잡혀 자기 배뿐 아니라 다른 친구의 배까지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손자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녀석이 내게 의사가 되고 싶다고 조용히 심증을 털어놨다. 의대에 입학하기가 녹록치 않을 터,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나는 손자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잘했다. 늦더라도 빠를 수 있지.’ 하고 격려하며 손자가 결정한 인생의 첫 제도수정을 지지해줬다.

되는 것이 없는가? 이는 당신이 무능력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능력이 부족한 것인데, 그것은 당신의 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럴 땐 지체하지 말고 제도수정을 하라. 글 서두에 말한 대로 경부선을 타고는 절대 전라도 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제도수정, 이는 당신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믿음의 선포는 운명을 바꾼다

30년 전 어느 금요일아침예배에서 목사님은 단에 오르시자마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이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를 이보다 더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더불어 먹는다고 하시지 않는가.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

구동성으로 교회가 켜어진 것 같으며 기뻐했다. 주일에배를 위해 하루 전날 교회에 나와 찬양연습을 하고 청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 힘을 모아 성전을 청소하며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이였다. 또한 이번 공사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신 조의수 장로님은 속히 일을 보려 가봐야 한다면서도 들뜨고 설레는 마음에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며 기뻐했다. 모두가 기쁨으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에서 인천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였다.

목사님은 이날 주일에배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생각과 말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 모든 행위, 내가 하는 말, 생각 모두를 통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명마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삶이 될 것이지만,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일삼으면 길들여지지 않은 난폭한 말, 비실비실하고 비쩍 마른 말을 타고 가게 되니 그 인생이 어디로 튈지 고꾸라질지 모르는 것이요,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하고 장정이 일주일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야 했던 광야의



새롭게 탄생된 인천예수중심교회 대성전

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목사님은 지난주일, 인천교회에서 위성 및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로 주일에배를 인도하셨다. 이번 인천교회 주일에배가 특별했던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대성전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그동안 양쪽으로 나뉘어있던 LED를 중앙에 하나로 합쳐 대형스크린으로 탈바꿈시켰고, 촬영카메라 및 오디오시스템을 교체하여 더 좋은 화질과 시원한 음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단상과 대성전 입구에 내려졌던 대형 커튼을 다 걷어내고 흡음재를 붙였다.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보니 성전 자체가 더욱 시원하고 웅장한 느낌이었다. 토요일에 예배 준비를 위해 봉사하러 나온 젊은이들은 이

“하나님은 민수가 14장 28절을 통하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 말에 전염되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공포와 두려움을 전염시킨 10명의 정탐꾼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 회중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은 내 밭이라며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찬양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대업을 맡아 진행하였

이스라엘 민족처럼 비고 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고 뿌리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며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하지 마세요. 설령 그렇게 정해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팔자, 운명을 뛰어넘는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반드시 여러분 삶에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당신도 할 수 있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8:20~21)

믿음이 있는 자는 생각과 말이 다르다

생각이 설계사라면, 말은 설계한 대로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고, 말대로 인생이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옛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된다’고 했는데, 참 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롤,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마7:16)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야 포도나무가 납니다. 3층 집을 설계해야 3층 집을 짓고요. 엉겅퀴를 심어놓고 포도가 안 열린다고 하거나 단층으로 설계해놓고 왜 3층 집이 아니냐고 한다면 말이 안 되듯, 부정적인 말, 나쁜 말, 험한 말의 씨를 심고는 절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지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의 예언인 셈입니다. 정말 그런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나옵니다. 구척장신인 골리앗과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다윗과의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의 승리로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유인즉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삼상17:43)라고 말했으나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개로 비유한 골리앗은 개처럼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말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

민수기 13장도 볼까요? 가나안을 탐지하러 간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뿐입니까? 그 말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씨는 역지로 뿌려도, 실수로 뿌려도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가나안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고 말을 잘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민14:28).

예언을 들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뿌린 말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고,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미래의 당신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0~21)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미국에 있는 땅끝예수전도단 회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60대 권사님이 남편과 사별하고 오랜 기간 혼자

자 살다가 늦게 한 남자분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첫

인상도 좋고 자녀들도 다 출가하여 거칠 것이 없는 것이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었는데,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면서 이 남자분하는 말이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라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이 소리를 듣고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했다가는 병수발만 들겠구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남자분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이 틀어진 겁니다.

노래도 슬픈 가사나 나쁜 가사의 노래는 부르면 안 됩니다. 가수들이 노래 가사대로 된다는 징크스가 있는데 사실입니다.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은 정말 산장에서 수도승처럼 외롭게 살다가 죽었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낙엽 따라 저 세상으로 가버렸고요. 그러나 ‘만남’을 부른 노사연은 노처녀였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결혼했고, ‘바다가 육지

라면’을 부른 조미미 역시 노처녀로 있었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남자가 일본에서 건너와 결혼에 골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한 말을 타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옳은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내 인생이 잘 됩니다. 씨를 심으면 바로 싹이 나지 않지만, 반드시 그 나무는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말을 했다고 바로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부터 ‘세계는 내 교구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액자에 써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결국 말이지 않

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끄시는 대로 ‘철산예루살렘교회’에서 ‘한국예루살렘교회’로 교회명을 바꾸겠다고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냥 철산이라고 하세요. 무슨 한국입니까?’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그 말에 동의했다면 저는 지금도 철산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목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교구를 꿈꾸며,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끌자는 생각을 가지고 입술을 지켰더니 그 나무가 자라 지금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야고보 선지자는 말합니다(약3:4~5).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말입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잘된다고 말하면 잘 되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은 불과 같습니다. 호주에서 몇 달째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했으나 광활한 대자연을 마

구잡이로 삼켜버렸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세 치 혀가 내 인생의 굴레를 씌울 수 있습니다(약3:6).

여러분, 이제라도 인생을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잘못 뿌린 것들을 거두고 다시 좋은 것을 뿌려야 합니다. 집도 오래되고 낡으면 재개발이든 리모델링해야 하듯, 인생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은 생각과 말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될 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다르다

좋은 생각을 하세요. 좋은 생각이 좋은 말을 낳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 생각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삶을 낳게 됩니다. 절대 생각 따로, 말 따르는 없습니다. 설계대로 건축되는 게 맞습니다. 성경도 그리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12:34~35).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생각과 말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인 암살롬에 쫓기고, 사울에 쫓기면서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열매를 맺어 결국 사울의 왕관이 그에게로 넘어왔고 늙도록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욥도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간 상황에서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1:21)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열매 맺어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진 고난 중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와 십자가에 같이 달린 우편 강도도 말 한마디 잘해서 낙원으로 직행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구원도 당신 생각과 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죽겠다’, ‘미치겠다’, ‘안 된다’, ‘팔자야’, ‘불황이야’, 이런 말일랑 접고 ‘너는 안 돼도 나는 된다’,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말하세요.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141:3).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웅달샘 ::

두려움이 두렵다

마음이 문제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AI 인공지능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우주여행의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큰 공포감을 주는 것처럼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의외로 큰 것 같습니다. 중세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페스트)으로 당시 유럽 인구가 9,000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에 4,000만 명 정도가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흑사병의 백신이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흑사병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발병한 이를 내에 항생제만 투여하면 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사스와 메르스가 유행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치사율은 3.4%로서 사스 9.8%와 메르스 34%에 비해서는 매우 낮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애굽의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재앙이 피하여 간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

이 네 우편에서 앞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시91:7).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10여 년 전 광우병에 대한 괴담이 만연했지만 광우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아마도 고기를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한해에 우리나라에서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3~4,000명 정도 됩니다.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1991년도에는 최고 13,429명이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를 타면서 극도로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공지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5:7)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상화평 목사

:: 성경에세이 ::

예수를 팔지 말라

여보게!

가롯 유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스승이었던 예수를 은 삼십 냥에 팔아먹은 자 말이야. 정확히는 은 삼십 세겔에 판 거지.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 세겔의 가치가 노동자 4일의 품삷 정도였다고 하니 삼십 세겔은 30×4=120일, 대략 노동자 3 달 치 월급 정도인 셈이네.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분의 능력을 봤고, 그분의 권세가 어떠한지 알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는데도 그리한 거라네. 그래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인물이 된 거라네. 그렇다면 가롯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판 적이 없을까? 그것도 아주 값싸게 말이야. 상사 눈치 보느라 상량식에 가서 돼지 대가리에 돈을 꿔고 절할 때 예수를 판 거고, 골프 약속 지키느라 주일 성수를 안 할 때 예수를 싸게 판 거고,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시댁 어른들이 무서워 제사 지낼 때도 예수를 판 거라네.

여보게!

스가라서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

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바 그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와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라는 말씀이 나오네. 은 삼십 냥이 “나를 헤아린바 그 값”, 즉 하나님을 헤아리는 값이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값이 은 삼십 냥 밖에 안 될까? 감히 하나님을 어찌 값으로 측량하겠는가?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도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아닌데 말이야. 믿음의 선전들은 하나님을 두고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갖은 고초를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자네는 제2의 가롯 유다가 되지 말게. 행여 비싼 값에라도 팔지 말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있지 않은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우리 삶의 전부라네. 그러니 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의 이름이 빛나도록 처신하게. 내가 비록 죽어도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이름임을 알게나.

朋友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발을 씻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다. 왜 이들은 잔치에 못 간다고 했을까? 마음이 없어서다. 꼭 잔치할 시간에 발을 돌봐야 하는가? 꼭 그 시간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는가? 그 시간에 마누라 안 보면 큰일 나는가? 다 핑계다. 자기 싫기 때문이다. 갈 마음이 없는 거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

제인 거다.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한다.’,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한다.’ 다 핑계다. 마음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고, 마음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거다. 과부가 헌금하고자 하니까 전 재산인 두 렵돈을 헌금하지 않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고후8:12)고 말했다.

“월급이 안 오르는데 아이들이 커서 들어갈 데가 많네요. 죄송한데 부모님 용돈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들이 정말 그래서 못 드리는 걸까? 아니다. 드릴 마음이 없어서다.

언제나 문제는 마음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예수중심편집실



:: 삶이 있는 이야기 ::

막힌 파이프

주방 싱크대에 물이 잘 안 내려가더니 갑자기 하수관이 터졌다. 오물 섞인 물이 넘쳐흘러 주방엔 악취가 가득해졌다. 배관수리공이 와서 쭈시고 밀어내고 굵어내니 간신히 물길이가 트였다. 뒤처리하는 오물이 내 똥이 되었다. 하수도 벽에 붙어있던 물결한 덩어리들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널려있었다. 구역질을 참아가며 그것들을 치우고 있노라니, 거리낌 없이 기름기와 음식찌꺼기들을 흘려보낸 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다. 파이프는 큰 덩어리가 걸려 막힌 것이 아니었다. 무심코 흘려보낸 오물들이 파이프 벽에 붙어 조금씩 통로가 좁아지다가 마침내 작은 덩어리 하나가 통과하지 못하고 완전히 길을 막아 터져버린 것이다. 좁아진 뇌혈관에 작은 혈전이 걸려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다.

막힌 파이프는 꼭 상처의 아픔을 꾸역꾸역 참다못해 터지고 마는 인간의 모습 같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무 말을 스스로없이 내뱉는 경우가 많다. 남들에겐 특별히 신경 써서 말하면서, 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네가 그렇지 뭐.”,

“알아서 하든가.”, “너 때문이야!” 무심코 툭툭 던지는 작은 말들은 서서히 마음속에 쌓여 응어리가 되고 부패되기 시작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계는 딱 막혀서 상대가 설움과 분노를 토해내는 순간이 오고 만다. 고약한 토사물을 손수 치우는 곤욕을 겪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소중한 사람과 연결된 파이프를 점검하고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

배관수리공이 말하기를 하수도는 평소에 생각날 때마다 파이프 세정제를 부어주고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 청소해주면 막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 한번 내뱉은 상처 주는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진심을 담아 존중, 호감,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5배로 해주면 그 상처가 씻길 수 있다고 한다. “사랑해”, “고마워”, “대단해”, 진심만 있다면 마음 파이프의 세척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늦기 전에 배우자, 부모, 자녀, 동료와의 막힌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기도와 노력을 더해보자.

이호은 사모

:: 내가 매일 기쁘게 ::

:: 참된 깨달음 ::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어린 시절부터 즐겨 들었고, 어른이 된 지금도 위로가 되는 성경 속 이야기 중의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어린 소년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함을 참지 못한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아갔다. 소년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요즈음 현대인들은 우울감,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외로움, 좌절감, 신경과민, 의심, 소화불량, 만성피로, 무기력과 에너지 부족 등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막막한 마음의 병에 종종 시달린다. 감기만큼 흔한 것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앞서 말한 증상들에서 자신 있게 자유롭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이러한 증상들이 비단 우리

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지중에 찾아온 천사들이 그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의심했었고,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했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양털로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받았으며, 모세도 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었다. 한나는 브닌나의 괴로움에 괴로워하며 몸부림쳤다. 그의 애통하는 모습은 엘리에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무수한 인물들이 보여준 연약한 모습에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란 존재는 나약하고 불안정한 것임을 느낄 수 있다. ‘흔들리는 것이 어디 꽃뿐이더냐’라고 말한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매일 매순간 흔들리고 또 흔들리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나약하여 매번 좌절하고, 매번

스트레스를 받고, 매번 우울해지고, 이로 인해 불면증과 짜증 속에 살고 있었다. 그때마다 성경 속 그들을 보며 나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문처럼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 내가 마음을 다잡고 본받아 할 사람은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었다. 담대한 다윗처럼 나도 외치리라.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한방에 물리친 것처럼 나도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나를 좌절케 하는 온갖 불안과 공포와 불신들을 날려버리리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를 오롯이 서게 함을 믿으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간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수 1:9). **전훈지 집사**

향기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선덕여왕의 공주시절, 당나라에서 보내온 모란꽃 그림을 보고 ‘꽃은 비록 고우나 그림에 나비가 없으니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씨앗을 심어본즉 과연 향기가 없었고, 선덕여왕의 영민함에 모두가 탄복하였다고 한다. 모든 사물은 고유의 냄새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닌 내용물에 따라서 냄새의 정도는 달라진다. 몸이나 외모에서 풍기는 냄새가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향기, 내면의 인격에도 냄새가 숨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냄새가 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 나온다.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사방에 퍼진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하여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몸만 신앙인인 자는 말이나 행동에서 비그리스도인의 냄새를 내뿜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분명한 삶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옳고 그름이나 믿음의 유무와 그 행동을 보고 상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이 타인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시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냄새를 풍기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향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의 향기, 갈멜산의 승리를 가져온 엘리야의 기도의 향기,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베드로의 순수한 신앙의 향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의 진한 믿음의 향기다. 이 신앙의 향기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참된 모습이다. **김정옥 전도사**

복음을 전파하자

TV를 켜면 광고 일색이다. 20초 동안에 자사 제품의 모든 장점을 알려야 하는 광고는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한다. 광고에 의해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마다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것이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양겔리온’, 영어의 ‘가스펠(Gospel)’으로서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복된 소식이며, 이는 예수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몸소 이룬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행13:38).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복음(롬1:1)이라고도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한다(롬15:19). 신약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자주 사

용되고 있는데 이는 ‘선전’이라는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즉 복음이란 나가서 자랑하며 퍼뜨려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사원이 자기 회사의 제품을 자랑하며 광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선전해야 하는 것이다. 자사의 제품에 자신이 있다면 광고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확실한 보증이 있다면 당연히 상품을 자랑하게 된다. 우리의 기업 되신 예수를 자랑함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분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과 그의 능력과 권세를 말함에 있어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소리 높여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 기업은 막대한 광고비를 결국 소비자의 주머니

에서 총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사랑의 기업이다. 예수를 잘 광고하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는 천국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회사의 제품을 잘 팔면 사주가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나중에 하늘의 상과 결하여 이 땅의 것으로 돌려 받게 된다. 내가 전하라.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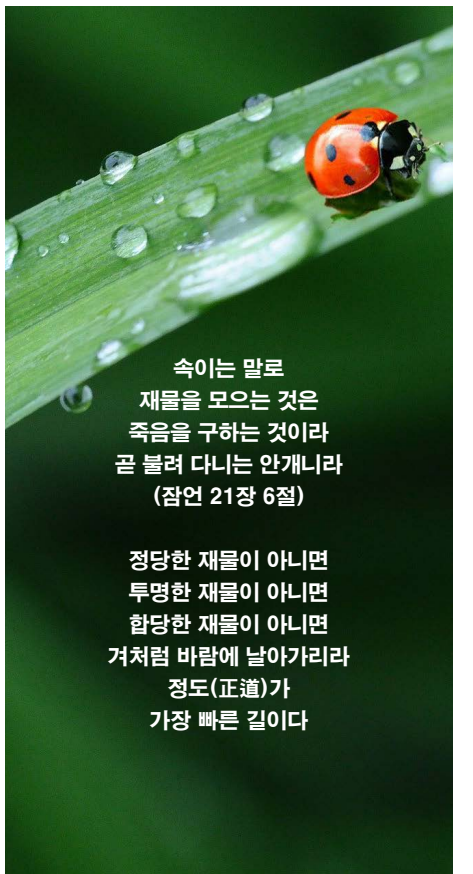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장수의 방법 5가지

건강과 장수는 불로초를 먹어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의 방법을 5가지로 요약해 보자. 첫째,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 적정량의 식사를 하자. 건강장수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과일, 채소, 견과류, 생선, 살코기, 콩으로 만든 음식, 검은색이나 자주색 식품, 충분한 수분 섭취 등과 같은 노화관리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을 평소애 잘 섭취해야 한다. 둘째, 중간 정도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운동은 현존하는 노화방지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운동을 하면 심장병과 뇌졸중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면역력과 근력을 높이며 기억력을 향상시켜 노화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관절의 노화를 늦추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등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 일반적으로 중간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와 스포츠의학회는 매일 혹은 2일에 한 번씩 최소 30분 이상의 운동을 권하고 있다. 여기서 30분이란 시간은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가장 적당한 운동시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 매일 유연성 운동을, 그리고 일주일에 2회 정도의 근력운동을 하자.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자.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며 노화를 가져온다. 심한 스트레스는 심신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흡연과 과음을 반드시 피한다. 흡연과 과음이 심장병, 암, 중풍,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질환, 만성간질환, 치매 등과 같은 주요 질병의 원인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울러 흡연과 과음이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다섯째,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기적으로 나에게 맞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명을 단축시키는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 치료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건강장수 비결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잘 실천해서 건강 100세 누립시다.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 다니는 안개니라 (잠언 21장 6절)

정당한 재물이 아니면 투명한 재물이 아니면 합당한 재물이 아니면 거처럼 바람에 날아가리라 정도(正道)가 가장 빠른 길이다